

김송의 전중소설 「영원히 사는 것」 연구*

이 상 원**

차 례

- | | |
|--------------|----------------------|
| I. 서론 | 2. 애정 갈등과 삶의 의미 |
| II. 본론 | 3. 전쟁을 보는 시각과 애국심 고취 |
| 1. 전쟁과 현실 반영 | III. 결론 |

국문초록

김송(金松)의 전중소설 「영원(永遠)히 사는 것」은 원래 전쟁 발발 직후부터 휴전협정이 진행되던 시기에 탈고,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당대의 시각에서 현실 상황을 잘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는 수많은 생명을 사라지게 하고 삶을 파탄과 고난으로 몰아넣은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인물들이 겪는 피난살이의 고난과 함께 애정 갈등이 전개되며 동시에 전쟁의 진행 상황과 그에 따라 전쟁에 참여하는 인물들을 그렸다.

특히 작가는 6.25전쟁을 단순한 무력 대결이 아니라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과 체제의 대결이라는 사상전(思想戰)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전쟁에 연관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국민이 힘을 모아

* 2012학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가톨릭대 교수

서 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의식이 소설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리하여 인물 설정도 반공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대립적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 애국자인 형철은 선인으로 그려지는 반면에 공산주의자 주몽일은 사상의 노예, 악인으로 그려진다. 석 달 동안 자행된 공산 정치의 폭압과 잔인성을 폭로하고 국군 모병에 자발적으로 응하여 전선으로 나가 싸우는 인물을 창조한 것도 소설의 주제와 상응한다.

반공적 시각을 견지하고 애국심을 고양하는 선전성(宣傳性)은 때로 부자연스러운 인물 행위로 드러나고, 대상이나 사실의 미화, 왜곡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은 소설의 사실성(寫實性)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서 지팡이를 짚는 형철이 잔적 소탕전에 참여하고, 미군 비행기가 눈이 달린 듯이 오로지 적을 골라 소탕하며, 제이 국민병(第二國民兵)을 투철한 애국애족 의식을 가진 존재라 서술한 것도 그러한 예에 속한다.

피난의 와중에서 형철-나미-정란이 애정 갈등과 파탄을 겪지만, 마침내 형철과 나미가 진정한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삶의 피폐와 절망을 이겨 내는 인간 구원의 길로 들어선다는 결말은 보편적 휴머니즘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 마지막 장 제목 ‘폐허의 달’이 상징하듯이 그러한 휴머니즘은 진정한 현실 극복의 길이라기보다 고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운명에 순응함으로써 절망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의 표현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한계성도 동시에 안고 있다.

이 소설은 전쟁이 안겨다 준 고난을 반영하면서도 애국심을 고취하고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현실을 헤쳐 나간다는 주제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단순히 반공 시각의 구현에 머무르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대표적인 전중소설로서 온당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 김송, 「영원히 사는 것」, 전쟁기, 전중소설, 선전성, 피난살이, 애국심.

1. 서론

한국전쟁기에 김송(金松)은 육군 중군작가로서 장단편을 다수 발표하였다. 김송은 1950년 6.25전쟁 발발 당시 서울신문 문화부장으로 있다가 서울이 함락되자 6월 28일에 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 가족은 부산으로 직행했으나 자신은 대전에서 하차하여 문인들끼리 조직한 문충구국대에 참여하였고 전황에 따라 부산까지 밀려갔다. 9.28 서울 수복 때는 중군 입성하여 문화인 쫓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1951년 1.4 후퇴를 앞두고 12월 26일 서울에서 대구로 남하하여 1951년 5월 26일 육군중군작가단에 참여하고, 다시 부산에 와서는 『新潮』 주간을 맡아 3호까지 발행하였다. 그리고 대구매일신문에 「永遠히 사는 것」을 연재하고 이를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김송은 휴전 이후에 환도하여 꾸준히 문단 활동과 작품 활동을 하였다.²⁾

김송은 1950년 9월 전세가 역전되자 해군 정훈감실의 제안에 따라 시인 조영암, 중군기자단장 박성환과 함께 LST를 타고 인천 상륙 작전을 참관하였다. 김송은 육군중군작가단 결성 시에 부단장으로 임명되고 이듬해인 1952년 5월 정기총회에서 사무위원으로 임명되었으나 10월에 열린 총회 때에는 동 작가단 명단에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³⁾

1) 김송(1908~1988)은 1939년에 희곡 「봉황금」을 발표한 이래 1941년 「石刀의 由來」를 발표함으로써 소설가로 전향했다. 김송은 24편의 희곡과 120여 편을 소설을 발표하였다. 임무출, 「김송소설론」, 『영남어문학』 제20집, 영남어문학회, 1991, 211쪽.

2) 임무출, 「김송의 생애연구」, 『영남어문학』 제16집, 영남어문학회, 1989, 318~320쪽 ; 「김송 연보」, 『한국문학전집 26』, 민중서관, 1959 참조. 환도 직후에는 「청춘」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1958년에 「자유문학」 주간을 맡기도 하였다. 1920년대에 일본 유학을 다녀온 김송은 1930년대에 방황하면서 희곡을 창작, 공연했고, 1940년대에는 해방과 함께 문단사에 길이 남을 「백민」 지를 간행하였다. 임무출은 김송의 생애에서 제5기에 속하는 1959~1969년을 ‘문학 절정 시대’라 명명하였다.

3) 신영덕, 『한국전쟁과 중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28~46쪽 참조.

김송은 활발한 문학 활동을 하였으나, 실제로 김송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⁴⁾

김송이 전쟁기에 쓴 장편은 『濁流 속에서』(신조사, 1951)와 『永遠히 사는 것』(백영사, 1952)이 있고, 단편으로 「서울의悲劇」 등 10여 편이 있다.

『濁流 속에서』와 『永遠히 사는 것』은 전시에 쓴 장편소설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濁流 속에서』는 1951년 6월 부산에서 탈고하여 같은 해 11월 20일 新潮社에서 간행하였다. 김송은 이 소설에서 6.25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6월 27일부터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기까지 겪었던 전 민족의 수난을 다루었다. 속편인 『永遠히 사는 것』 역시 부산에서 썼는데 두 작품은 1951년에 완성한 2부작이다. 『永遠히 사는 것』은 1952년에 서울에 있던 白映社에서 출간하였다.⁵⁾ 그리고 『濁流 속에서』를 『濁流』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1953년 8월 15일 서울에 있던 一文社에서 발행하기도 했다. 이 『濁流』를 간행하면서 ‘再版’이라 한 것은 『濁流 속에서』의 재판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 『濁流』는 『濁流 속에서』와 내용이 완전히 똑 같고 끝에 붙인 ‘부기’도 동일하다. 이후에 이 2부작을 『永遠히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합본하였다.⁶⁾

-
- 4) 기존 연구로 임무출의 전계 「김송의 생애연구」, 「김송소설론」과, 최상민의 「김송 희곡에 나타난 근대의식 고찰」(『한민족어문학』 제44호, 한민족어문학회, 2004)가 있고, 특히 신영덕은 『한국전쟁기 중군작가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3 ; 『한국전쟁과 중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등에서 김송의 중군활동과 소설 작품을 연구했다. 그 밖에 일부 단편 작품들이 논자에 따라 단편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 5) 김송은 장편 『濁流 속에서』의 293쪽에 적은 ‘付記’에서 속편을 예고하였다. 이 ‘부기’는 1951년 6월에 부산 천마산 하(天馬山下)에서 쓴 것으로 되어 있다. 또 『永遠히 사는 것』의 ‘後記’에서 ‘앞으로 平和가 오고 印刷用紙等 事情이 如意하면 單一題目 아래서 一, 二部 合本이 되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후기’는 1952년 3월 1일에 역시 천마산 아래에서 쓴 것이다.
- 6) 이 합본 『永遠히 사는 것』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한국문학전집 26』(민중서관, 1959)에 이 합본한 『永遠히 사는 것』이 실려 있다.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으나 2부작(각각 단행본으로 나온 『濁流 속에서』와 『永遠히 사는 것』)과 내용상 차이가 없다. 신영덕도 이 합본한 작품을 자세히 소개한 바

본고에서는 김송의 대표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이 민중서관에서 낸 한국문학전집에 실린 작품을 텍스트로 삼아서 그 특징을 분석하고 전중소설로서의 성과를 고찰해 보려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작가 김송의 문학을 살핌과 동시에 우리 전중소설⁷⁾의 수준과 성과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본론

동족상잔이라는 민족적 비극이 전개되어 나감에 따라서 피난민 행렬과 피난살이가 뒤따르고 인민군의 점령에 따른 적치하의 고통, 부역 행위, 인민재판과 숙청, 의용군 징집 등 온갖 혼란과 고난이 시작되었으며 파괴와 살육이 뒤따랐다. 전투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 가족의 이별,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이른바 양부인의 등장, 구두땀이, 양담배 장사 등 생활비를 벌기 위해 길거리에 내몰린 아이들, 기아와 질병 등 전쟁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연을 낳았다. 작자 김송은 이러한 전쟁의 비극을 치밀하게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애정 갈등 문제를 주요 플롯으로 설정하여 그들의 운명과 심리적 피해를 부각시킨다. 전쟁의 참혹성과 비극성을 그린 2부작을 합친 이 『永遠히 사는 것』은 단순히 피난지 후방 생활을 그리거나 전시 삶의 단편을 그린 작품과 그 스케일이 다르다.

있다.(신영덕, 『한국전쟁과 종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96~101쪽)

7) 본고에서 말하는 ‘전중소설(戰中小說)’을 흔히 ‘전쟁기 소설’, ‘전시소설(戰時小說)’이라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전쟁기 소설이나 전시소설이라는 용어가 일반적 명칭으로 정립된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쟁기’는 ‘비전쟁기’의, ‘전시’는 ‘평화 시’의 대립 개념으로 이해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전전(戰前), 전중(戰中), 전후(戰後)라는 시간적 연속 개념을 고려하여 일단 전중소설이라는 말을 쓰기로 한다. 이 용어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永遠히 사는 것』은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8일부터 1952년 2월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주로 서울, 대전, 부산, 인천, 대구 등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면서 당시의 전쟁 상황과 피난 생활을 비롯한 제반 현실을 그려 낸다.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을 이겨야 하고 침략자를 물리쳐야 한다는 시각에서 작자는 소설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전쟁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보여주면서도 침략자 또는 침략자 편에 선 인간을 악인으로 본다. 그래서 침략자를 물리치고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 반공 의식과 애국심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또 소설에서는 이른바 양갈보(양부인)의 양산이라는 문제까지 부가하면서 애정 갈등도 제기한다.

인물들의 의식 변화와 현실 반영 정도, 애정 갈등의 해결 등은 이 소설의 가치를 평가할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1. 전쟁과 현실 반영

소설에서 작가는 전쟁 발발 직후 시민들의 일상과 생각과 행동, 그리고 시시각각 전개되는 급박한 상황을 제시하고 서울의 분위기도 묘사한다. 그리고 인민군 수중에 떨어진 서울의 모습과 한편으로 홍수처럼 밀려가는 피난민 대열, 피난 생활, 지원 입대와 전투 등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전쟁으로 말미암은 ‘전민족의 수난’을 소설화하려는 작가의 의도는 소설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소설은 전쟁의 전개와 그 상황이 꼼꼼히 제시되면서⁸⁾ 그에 따라 인물의 행동이 호응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소설 서두 부분은 특히 이러한 특징이 뚜렷이 드러난다. 서두

8) 『濁流 속에서』, 신조사, 1951, 293쪽 ‘付記’. ‘6.25 사변이 일어난 그 당시부터 그 해 9.28 서울 수복하기까지의 3개월 동안 겪었던 전민족의 수난을 이 한 편에 엮어 보았다’라고 했다. 소설의 첫 부분은 서울이 적의 수중에 떨어지기 전날, 자유를 누리던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을 다룬다는 뜻에서 장 이름을 ‘최후의 날’이라 붙인 것 같다. 이 『濁流 속에서』라는 소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은 합본된 『永遠히 사는 것』에 그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에서는 서울을 점령당하기 전날인 6월 27일, 심상치 않은 서울의 분위기와 함께 서울 함락이 임박했음을 시시각각 보여준다.

갑자기 서울에 나타난 피난민들은, 공산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개성에서, 의정부에서 피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국군이 공산군을 물리쳤을 것으로 믿는다. 피난민을 오히려 북한이 은밀히 보낸 공산당 오열이라 의심한다. 은행에는 돈을 찾으려는 사람이 몰려들고, 경찰간부의 가족이 아침에 피난했고, 공산군이 의정부를 점령하고 창동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진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중요 서류를 불사르는 연기가 오르고, 정부 천도설이 떠돈다. 그러나 신문 호외에는 국군이 의정부를 탈환했을 뿐 아니라 ○○부대가 복상하여 해주를 점령했다는 기적 같은 쾌보가 실려 있어서 사람들이 안도한다. 오후 세 시에는 갑작스런 공습경보가 울리고 상공에 나타난 비행기에는 인공(人共) 마크가 찍혀 있었다. 피난민들은 공산군이 창동을 점령하고 미아리 방면으로 탱크를 앞세우고 들이닥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구파발 부근에서 울리는 포성까지 들리자 형질은 적이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고, 전세는 기울어서 승패는 결정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데도 라디오에서는 삼팔선을 침노한 적을 격퇴하고자 국군이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과, 적을 무찌르고 압록강, 백두산까지 진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하루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서울이 함락될 것을 깨닫고 형질이 탈출을 결심하게 되는 하루이다. 작가는 전쟁발발과 서울 함락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상황과 사태를 박진감 있게 제시한다. 서두뿐만 아니라 피난민의 고난을 그리면서도 사실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가는 당시 전쟁 상황이나 정부의 태도를 함께 제시하는 수법을 쓴다.⁹⁾

9) 예컨대 이형질이 6월 28일 밤에 한강을 건너 영등포의 어느 여관에 들었을 때 밤중에 이 대통령의 녹음된 음성이 라디오 방송에 흘러나온 것으로 되어 있다. 방송 내용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서 북한 공산군을 격퇴할 것이니 각각 직장을 사수하라는 것이었다. 정일권이 참모총장에 임명되어, 국군을 재편성하여 일대 반격

다음으로 전쟁 상황인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을 채우는 사람을 고발한다. 형철이가 근무하던 서울건축회사 오사장은 부산역 앞에서 전제 민구제소(戰災民救濟所)를 운영하면서 구호품을 빼돌린다. 피난민들에게 나누어줄 오징어, 비누, 광목 같은 구호품을 4~5%씩 잘라먹는 ‘구제 사업’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다.

외국에서 구호 물자가 들어오면 제각기 뜯어먹고 실지 구호 대상자에게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간상배의 손으로들 넘어가는 사실이라든가 국민이 기껏 세납을 바쳐 나라 일을 도우려고 하면 그것이 예산(豫算)면에만 남고 실지 지출은 어느 「버치」 속에 새들어갔는지 모르는 형상이라든가, 그리고 오소장과 같이 피난민 구제소라고 간판을 걸고는 사 퍼어 센트나 오 퍼어센트를 잘라먹는 따위—¹⁰⁾

이처럼 사회를 좀먹는 존재로 말미암아 현실은 ‘탁류’와 같이 어지럽다. 이러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민족 앞에 양심껏 살아야 한다고 형철은 생각한다.

그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은 파괴와 살육의 현장에 대한 묘사를 적절히 제시한다. 예컨대 ‘건물이 무너지고 시체가 뒹굴고 아이들이 방황하는’ 인천 시가의 모습¹¹⁾이라든가, 서울을 향해 진격하는 해병대가, 전방 104 고지를 방어하는 적과 수색에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은 소설의 사실성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한다.

철교 아래엔 여기저기에 총탄 포탄의 껍지와, 먹고 버린 통조림의 빈 통과, 레이슨 마분지통이 너저분하게 널리 있고 총탄 구멍이 송송 뚫려

을 가할 것이라는 소식도 제시한다. 7월 중순에는 대전역 광장에 미국의 군기군 물이 산적해 있고 트럭마다 미국이 탐승하는 것을 보고 군중들이 미군과 미제 군기를 찬양한다는 것도 이러한 예에 속한다.

10) 『永遠히 사는 것』, 90쪽. 이하 이 텍스트를 인용할 때는 해당 쪽수만 밝히기로 한다.

11) 130쪽.

져, 마치 별통을 연상케 하는 찢차와 추력이 방축 위에 나뉘고러져 있다. 찢차 아래에는 입자 없는 철모(鐵帽)와 탄대(彈帶)가 흩어져 있고, 피 묻은 군화가 주인의 발에서 벗겨져 있는데, 죽어 넘어진 군인들의 눈은 하늘을 향해 부릅뜨고 무참히 길바닥 위에 누워 있다.¹²⁾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3일에 걸친 공방전에서 수백 명의 전사자와 수천의 부상자를 낸, 추석 하루 전날 전투의 치열성을 느낄 수 있다. 이어서 벌어진 서울 시가전(市街戰)에서도 사흘 동안 불바다를 이루고 네거리 에 시체가 쌓였다.¹³⁾

그 밖에도 국군 자원 입대, 적치하 석 달 동안에 자행된 공산당 정치의 폭압성, 비참한 피난민촌 움막¹⁴⁾과 피난 생활, 양부인의 증가 등의 제시는 전중의 삶을 형상화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한다.

2. 애정 갈등과 삶의 의지

이 소설은 겉으로 전쟁과 피난살이를 다루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삼각관계를 형성한 애정 갈등이 소설의 주요 플롯을 이룬다. 이형철과 약혼녀 최나미 그리고 유부녀 김정란 이 세 인물이 애정 갈등을 겪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최나미는 X여자대학을 졸업하고 Y회사 사무원으로 일하던 중 스물두 살에 6.25를 만난다. 그 해 봄에 이형철과 약혼을 했고 가을에는 혼인을 할 예정이다. 형철은 나미와 헤어져 피난하던 중에 어린아이 둘과 함께 피난하는 김정란이라는 이십 육칠 세 되는 여성을 만난다. 정란은 서울 이화대학을 나온 후 우승진이라는 민중신보사 지방부장과 결혼했다. 정

12) 133쪽.

13) 이러한 묘사와 전투상황의 제시는 작가의 종군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수복 직전 하루 전날의 전투 상황은 단편 「달과 전쟁」(『전시문학독본』, 계몽사, 1951)에도 나타난다. 신영덕은 「달과 전쟁」을 소설이라기보다 종군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국전쟁과 종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92~93쪽.

14) 예컨대 부산 대구 칠성동 피난민촌을 들 수 있다.

란은 대전으로 출장을 간 남편을 찾아 피난길에 나섰고, 애정 없이 결혼한 정란은 형철에게 도움을 받으며 형철을 사랑하게 된다.

정란은 형철과 함께 부산까지 피난하여 미군 PX에 취직을 한다. 정란은 형철을 애타게 사랑하지만, 형철은 나미 때문에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뜨거운 애국심을 가지고 있던 형철은 스스로 모병에 응하여 입대함으로써 정란의 애정 공세를 벗어난다. 그 후 중부전선에서 부상을 당하고 부산 육군병원에 입원한 형철의 다리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오일 페니실린’을 구하기 위해서 정란은 미군 병사 ‘죤’에게 몸을 바친다.

전 애정에 살아보려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우승진을 배반하고 형철씨를 진정으로 사랑했지요. 그러나 형철씨에게 나미란 영원의 여성이 엄연히 있지 않아요. 일테면 애정에 있어선 제가 패배한 셈이지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상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무슨 존재로 여기는 양갈보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¹⁵⁾

이처럼 정란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수렁의 길로 들어섰다. 죤은 정란을 천사처럼 받들지만 정란의 깊은 애정은 여전히 형철을 향한다.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 있게 된 형철은 동회 청년단 간부라는 자격으로 LST를 타고 인천에 상륙하였고, 이어서 서울 왕십리 나미의 집을 찾아간다. 그러나 결혼 문제를 꺼내지 못한다.

…지팡이가 없이는 걷지 못하는 몸—이 병신 몸으로 행복을 꿈꾸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뺄어떨어진 사고인지는 몰라도 온전한 인간의 자격을 상실한 지금의 자기가 아닌가? …(중략)… 그의 장래는 삭막한 사막이다. 다리의 상처로 인하여 자기의 생애도 절름발이와 같이 될 것이다.¹⁶⁾

15) 120쪽.

16) 148쪽.

이처럼 형철은 행복을 전제로 하는 결혼에 대해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 스스로 인생에 실패한 폐물이라 여기는 형철은 ‘나미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단념하리라’라고 생각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나미는 나미대로 서울이 점령당한 당시 공산군 장교 주몽일에게 강간을 당한 경험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은 유보 상태에 놓이지만 나미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1950년 12월에 대구로 피난한 나미는, 중공군이 서울로 들어오자 다시 피난길에 올랐다가 쓰러진 형철을 대구 병원에서 만나게 된다.

나미는 주보(週報) ‘한국전선(韓國戰線)’을 발행하는 대한전선사에 취직하여 제이 국민병 변사 사건을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일약 이름을 얻고, 중부전선 원주까지 가서 중군을 하고 돌아올 정도로 활약을 한다. 그러나 나미는, 북한에서 빨치산 장교가 되어 서울에서 활약했고 대구까지 내려와 간첩 노릇을 하는 주몽일에게 납치를 당하여 고초를 겪는다. 형철은 대한전선사 주필이자 형철과 중학 동창인 한철을 칠성동 피난민촌으로 찾아갔다가 뜻밖에도 정란을 만난다. 형철은, 정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동거를 함으로써 육체의 노예가 되었다는 편지를 정란에게 보낸다. 나미는 설상가상 주몽일의 씨를 밴 상태로 번민하다가 해운대로 떠나 버린다. 해운대로 나미를 찾아가서 나미의 일기를 본 형철은, 나미가 주몽일에게 육체를 빼앗기고는 형철이 정란과 동거한 사실에도 충격을 받아 절망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아차린다.

죽음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정한 나미는 형철에게 ‘영원히 사는 길’¹⁷⁾을 탐구했다고 말한다. 바다 속으로 뛰어들면 육체와 영혼이 바다 속에서 정화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에 형철은, 사랑으로써 나미를 구원하기로 결심한다.

비록 나는 신이 아니지만 인간은 혹 신이 될 수도 있지 않소. 그러나

17) 270쪽.

까 신이 구하지 못하는 인간을 신이 아닌 인간이 구원할 용기를 가졌다 는 말이오. 그 용기는 영원한 것이지요. 사랑이지요. 인간도 그 사랑 앞 에는 굴복을 당하고 맙니다. 모든 문명의 기계들이 전쟁 마당에 있어서 는 그의 본성을 버리고 폭력화(暴力化)하였지만, 이 사랑만은 변해질 수 없는 것이요. 그것을 이제부터 나는 시험해 볼 작정이요.¹⁸⁾

형철도 사실은 나미를 껴안고 바다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잠시 느 껴지만, 죽음 앞에서 도리어 생의 강렬한 의욕이 일어나 나미를 구원하 고 ‘다시 사는 길’을 가기로 한 것이다.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 함없는 사랑으로써 그 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은,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고 존엄성을 옹호하는 사상과도 통한다. 이어서 두 사람은 어느 내과(內科) 병원에 가서 나미가 잉태한 주몽일의 씨를 지워버리려 하다가, ‘생명을 헤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 잔인한 사상’이라는 의사의 말을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비록 원수의 씨 라 할지라도 생명을 끊는 일은 죄악이요 폭력이며, 어떤 생명이라도 보 존하는 것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인간은 싸우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 이 라는 생각에 도달한다.¹⁹⁾

사랑과 생명 존중이라는 보편적인 이념은 곧 휴머니즘과 통한다. 휴머 니즘은 신이라든가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대신 인간성을 중시하고 스스 로 노력하여 자아를 완성하는 인간의 잠재력을 인정한다.²⁰⁾ 그런데 소 설에서 제시하는 휴머니즘은 생명의 존엄성을 옹호한다는 다분히 추상 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과 자 율을 누리고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기하지 못

18) 272쪽.

19) 277쪽.

20) 휴머니즘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휴머니즘 입장에서는 인간 존재는 자 신의 지성이나 협동으로 땅 위에 평화와 미의 아성을 세울 수 있다고 믿는다.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휴머니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1~2 쪽 참조.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거대한 충격과 고통 속에서 순수한 사랑까지도 훼손당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 상황을 감안하면 이처럼 사랑의 회복과 생명의 보존이라는 가치를 인식하고 정신적 파탄을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의 발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쟁이 안긴 고난과 실연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각혈까지 하던 정란은 마침내 풀밭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숨을 거두지만, 형철과 나미는 스스로 혼인 예식을 올린다. 그리고 사글세 방을 수삼 차 옮기면서 대구에서 부산으로, 다시 대전으로 유전하며 ‘발붙일 곳 없고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린 듯한’ 피난민 생활을 영위한다. 판문점에서 정전회담이 시일을 끌고 있을 때 나미의 어머니는, 의용군에 끌려가 끝내 소식을 알 수 없는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나고, 형철의 어머니도 중공군이 서울에 들어온 이후에 굶어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한다.

형철과 나미는 살 길이 막연한 피난생활에서 벗어날 겸 서울로 들어가려 하지만 도강증명서(渡江證明書)가 없었다. 비상수단으로 빈 도람깡(군용 휘발유 통) 두 개를 새끼로 묶어서 타고 널쪽으로 저으며 중류까지 들어갔지만 물살에 밀려 하류로 떠내려간다. 물살에 대항할 힘도 없이 생사를 운명에 맡기며 두 사람은 죽는 것도 무섭지 않고 ‘죽어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한다. 다만 삼각산에 솟은 ‘송편처럼 배가 약간 불룩한 달’이 한강 여울을 따라 흐른다. 이러한 결말은 피난살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사랑과 믿음으로, 의욕적이고 정열적으로 앞날을 개척해 나가기에 어려운 상황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3. 전쟁을 보는 시각과 애국심 고취

소설 『永遠히 사는 것』은 작가가 6.25 전쟁을 보는 관점과 반공적 의식을 뚜렷이 드러낸다. 이러한 시각은 작자의 의식이면서 동시에 당시대 일반인의 반공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먼저 등장인물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 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하는지도 살펴보기로 한다.

(1) 반공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대립적 설정

소설에 나오는 인물을 크게 애국적 인물 즉 반공주의자와, 공산주의자로 나눌 수 있다.

애국적 인물로는 이형철과 최나미, 김이섭, 한철, 계영식, 한석구 형사 등이 있고 공산주의자로는 주몽일, 우승진, 오사장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이형철과 김이섭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극우적인 입장에 서 있고 한철, 계영식도 형철과 고향 친구로서 월남했거나 이북에서 피난을 한 인물로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주몽일은 골수 공산주의자이고 우승진은 회색분자에서 공산주의자로 변한 경우이다. 오사장²¹⁾도 한석구 형사의 친구이지만, 주몽일과 우승진의 활동에 자금을 조달한다.

주인물 형철은 고향이 함경도이고 중학생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8.15 광복 전에 전문학교 진학을 위해 서울로 이사하였고 광복 이후에 학련(學聯) 책임자로 있다가, 학교 졸업 후에는 M동 청년운동의 선봉자로 활약하며 공산주의 타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²²⁾ 그래서 형철은 서울이 적의 수중에 떨어지면 민족운동자를 모조리 잡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고 자결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국군 모병에 응하여 중부전선에서 활약하다가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고 부산 육군병원에서 제대를 했고, 인천 상륙 작전 직후에는 LST를 타고 인천으로 가서 종군한다. 중공군이 서울로 들어오자 다시 대구로 피난하여, 함경도에서 피난한 계영식과 피난학교를 열어 피난 아동을 교육하기도 한다.

최나미는 서울 XX여자대학을 졸업하고 Y회사에 취업하여 일하면서

21) 이 오사장은, 형철이 서울에서 다니던 건축회사의 오사장과 다른 인물이다.

22) 형철은 신탁통치에 반대하고 5.10 선거를 추진시키고 4~5년 동안 좌익 계열과 치열한 투쟁을 했던 것이다. 형철은 중간 회색분자와 좌익 공산분자를 매국노로 타매하고 적대시하였다.

가을에 결혼할 예정인데, 나미의 아버지는 목사이고 어머니는 기독교 신자이다. 나미는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하기 전 1950년 12월에 대구로 어머니와 함께 피난하여 「한국전선」 여기자로서 제이 국민병 번사 사건을 취재하고, 원주에 가서 중군도 한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무시하는 공산주의를 분명히 반대한다.

김이섭은 함경도 시골에서 형철과 같이 자란 소학 시절 동창으로 8.15 이듬해에 월남하여 천안에서 가족과 함께 냉면옥을 경영했다. 형철과 함께 대전으로 피난하였다가 부산에서 모병에 지원하였다. 김이섭의 입대하자 고무된 형철도 자원입대를 했던 것이다. 김이섭은 중부전선에서 OO부대가 재편성될 때 우연히 형철의 부대에 들어와 전투에 참여한다.

한철은 형철과 우정이 두터운 중학 동창으로 한국전선사 주필로, 중군 기자로 활동한다. 계영식은 함경도 출신으로 흥남 철수 때 아내와 어머니를 남겨 두고 거제도로 피난했고 대구에서 형철과 피난학교를 운영한다. 이 밖에 형철이 부산에서 전재민 구제소에 근무할 때 만난 수부계 청년 장 씨는 해병대에 지원하였다.

이처럼 애국심을 가진 인물들은 대체로 형철과 학교 동창 등 인간관계가 있고, 이북에 살다가 월남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국가와 민족이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반공 의식을 가진 인물이 여럿 등장하여 반공적, 애국적인 경향을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주몽일이라는 적색분자와 우승진 같이 공산주의에 부화뇌동하고 부역하는 회색분자가 등장하고, 복수 아버지 같이 서울이 점령되자 공산당에 부역하는 인물도 나온다.

주몽일은 북한에서 빨치산 부대 장교였고 6.25 때 서울에 들어와 활약하다가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자 잠복하였다. 이어서 중공군이 남침하자 피난민을 가장하여 대구까지 내려와 간첩으로 암약한다. 그리고 김정란의 남편 우승진은 서울에서 동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책임자가 되어 ‘이승만 정부에 협력한 반동분자’를 철저히 숙청해야 한다고 말하고, 애

국자를 조사하고, 의용군 강제 모집 협력하며, 재산 있는 사람의 가산을 약탈하여 인민군에게 바치는 등 부역을 일삼았다. 대구에서는 주몽일의 하수인이 되어 주몽일과 함께 군사기밀을 조사해서 무전으로 우라지오 스톡 본부에 보고하는 ‘소련 극동 방첩 사령부’의 밀정으로 암약한다. 이때 우승진은 나미를 유인하여 감금했고, 나미는 또다시 주몽일에게 협박과 강간을 당한다.

그 밖에 형질을 사랑하는 김정란과, 서울에서 건축회사를 운영하다가 부산에서 전재민 구제소를 운영하며 이득을 챙기는 오사장 같은 인물은 이데올로기적 면에서는 중립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 구도 속에서 소설은 작가의 의도대로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전 민족에게 부과된 사명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2) 애국심 고양과 리얼리티 미흡

6.25 전쟁은 기본적으로 내전과 국제전의 성격도 띠지만, 소설에서는 전쟁의 기본 성격이 사상전(思想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더우기 이 싸움은 군대와 군대만의 싸움이라기보다 전 시민이 누구 한 사람 가담하지 않을 수 없는 사상전(思想戰)이기 때문에, 공산민주의 죽음을 결하는 전쟁인 것이다.²³⁾

이처럼 본질적으로 이념 대결이라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른바 반동 분자 처형, 의용군 징집, 강제 부역 동원, 민간인 납치와 살육이 자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산 치하에서 부역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과 처형도 적지 않게 뒤따랐던 것이다.²⁴⁾

23) 139쪽.

24) 예컨대 서울 수복 때 자위대원들은 부역자를 수색해서 경찰에 넘겼는데 여기서도 보복과 무고한 희생이 강요되었다. 143쪽.

화자의 서술에 따르면 현대 인간은 사상의 지배를 받고 기계로 화하여 인간 본성을 상실²⁵⁾하였다. 인간은 사상과 무기의 노예가 되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물의 선악도 소설에서는 그 사상에 따라 구분된다.

주몽일은 인간이다. 형철이도 인간이다. 인간 주몽일은 악마다. 인간 형철은 선인(善人)이다. 그러나 주몽일은 사상의 도구가 되어서 인간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선인이 되지 못했다. 인간의 본성인 선을 개조한 것이다. 즉 인간으로서의 주몽일은 사상의 노예가 되고 만 것이다.²⁶⁾

공산주의자 주몽일은 악인이요 애국주의자 형철은 선인이라는 것이 나미의 생각이다. 철저한 공산주의자는 인간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악마이다. 작자도 이러한 악마, 사상의 노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다.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서울 수복을 앞두고 형철이 수색에서 만난 중류계급 가정의 중년 부인은 공산당 정치의 폭압성을 이렇게 폭로한다.

……그 치독 맞아 죽을 놈들이 어떻게 백성을 못살게 굴든지— 부역을 나오라, 의용군으로 자원하라— 또 반동분자를 처단하라— 하면서 백성을 한낱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않았다우. 그래서 우리 권은 아들을 데리고 먼 시골로 피신해 갔지요. 그것뿐인가요. 토지를 농민에게 그저 준다고 해놓고는 이제 가을이 되니까 징출인지 공출인지 하라고 조살 다니는데 콩알갱이를 헤고, 감자알을 헤고 벼이삭까지 헤어 놓군, 수확되 기만 하면 모두 뺏어가려는 참이에요.²⁷⁾

25) 256쪽.

26) 255쪽.

27) 131쪽.

중년 부인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90일 동안 못살게 굴던 공산분자들은 미국 비행기만 뜨면 제일 먼저 숨고 농민들에게는 숨지 말라고 으르대었다. 그렇지만 폭탄 속에 눈이 박혀 있는지 백성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놈들이 숨어 있는 곳만 폭격을 했는데, 그래서 수색 정거장에 숨은 공산당 놈들이 수천 명은 죽었을 것이라 한다. 미국 비행기가 눈이 달린 것처럼 공산당만 잡았다는 부인의 말은 사실이라기보다 공산정치에 대한 염증과 공산주의자에 대한 증오심의 반영일 것이다.

소설에는 국민을 억압하고 못살게 만드는 침략자에게 대항하여 나라와 민족을 구하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고 그런 생각은 국가지상, 민족지상이라는 이념으로 구체화된다. 김이섭은 모병을 피해 다니는 청년들과 달리 부산에서 모병에 자진 응모한다.

그러나 김이섭은 가족이고 자기 생명이고 돌볼 때가 아니다. 나라와 민족이 망한 후에 가족이 살고 자기가 살면 뭣하느냐— 하는 국가지상(國家至上) 민족지상(民族至上)의 이념이 그의 머릿속에 꼭 배겨 있었다.²⁸⁾

이러한 이념에서 김이섭은 공산군을 쳐 물리치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입대를 한다. 이러한 김이섭의 용단은 형질이 자원입대하는 계기가 된다. 형질이 지원을 마치고 거리로 나서면서, 자신은 피난민이 아니요, 나라에 바치는 몸으로서 민족의 생(生)을 위해 쓰이기 위해 전선으로 가는 인물로 거듭난다.

그는 수속을 마치고 거리로 나오니 한끝 심신(心身)이 가벼워진 것 같았다. 사람도 건물도 자동차도 모두 모두 우쭐우쭐 움직이고 탁류(濁流)와 같이 어지럽게만 보이던 이 현실이 새롭게 변해진 것 같았다.²⁹⁾

28) 92쪽.

29) 94쪽.

그러나 이처럼 전 민족에게 부과된 사명 즉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선으로 간 형철은 일선 전투부대에서 다리에 부상을 입고 부산에서 제대를 한다. 그리고는 부산을 벗어나 가족과 나미가 있는 서울로 가고 싶어서, 또 공산군을 무찌르며 서울로 들어가는 선봉 부대를 종군하고 싶어서 해군 본부에 요청하여 LST를 타고 인천으로 향한다.

해병대를 따라 종군하던 형철은 수색 전투에서 공산군이 패주하자 청년단 자위대와 함께 소총을 집어 들고 잔적 소탕을 위해 따라간다. 독전대의 총에 다리를 다친 소년 인민군을 잡아 포로 취급소에 넘긴 형철은 침략자들에게 적개심을 느낀다. 그런데 형철이 아무리 이념에 투철하다 하더라도 다리가 온전치 못하여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도, 소총을 들고 고지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잔적을 소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런 점은 인물 행위에 작위성을 부여하여 소설의 리얼리티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애국심 양양이라는 작가의 의도는 제이 국민병(第二國民兵)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타난다. 소설에서 ‘제이 국민병 변사 사건’이 일어나자 나미는 현풍으로 달려가 취재하여 「한국전선」에 게재함으로써 제이 국민병 징집의 문제점과 국민방위군의 부패상³⁰⁾을 폭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소설에서는 제이 국민병 변사 사건의 원인을 대체로 정확히 지적한다. 청장년들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훈련을 시킨다고 경향간 모집해 놓고는 의복과 식량 공급을 하지 않아서 굶어죽고 얼어 죽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이 국민병 장정이 적의 수중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부에서 미리 징

30) 당시 중공군이 개입하자 다급해진 정부는 1950년 12월에 제이 국민병역 장정들을 소집하여 후방의 국민방위군 교육대로 주로 도보로 이동시켰다. 정부는 제이 국민병의 이동, 수용, 훈련을 국민방위군에게 맡겼는데 이송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국민방위군 간부의 횡령으로 말미암아 교육대에서도 사상자는 계속 발생하였다. 이른바 국민방위군 사건이다. 제이 국민병의 참상은 1951년 1월 부산 피난 국회에서 그 문제가 알려지게 되었다. 남정옥, 『6.25전쟁사 예비전력과 국민방위군』, 한국학술정보, 2010. 참조.

집, 수용하였음에도 소설에서는 오히려 제이 국민병을 애족적, 애국적인 존재로 부각시킨다.

장정들은 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흥망을 타개하기 위하여 민족애와 동포애에 불타는 열의(熱意)로써 조국방위 전선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순수무구한 순정으로써 이 나라 건설에 한 역군이 되고자 나아가고 있다. 그들의 전 희망은 민족의 영원한 삶에 있다. 민족의 공생(共生)을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초개같이 버리는 것이다.³¹⁾

제이 국민병이 민족애와 동포애를 바탕으로 조국 방위에 나서면서 고귀한 생명을 바치고 있다는 이러한 화자의 평가는 실제 사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군 비행기가 우리 국민을 한 사람도 살상하지 않고 인민군만 폭격하고, 부상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형질이 고지에 오르면서 공산군 잔적을 소탕하는 데 참여하며, 제이 국민병을 애국애족의 열의를 가진 존재로 평가하는 것은 소설의 리얼리티를 떨어뜨린다. 당대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약점을 노출하는 것이다.

그 원인은, 공산 정치의 부당성을 제시하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전 민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시각에서 애국애족 정신을 발양하려는 의도가 소설의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Ⅲ. 결론

본고에서는 김송의 전중소설 「永遠히 사는 것」을 텍스트로 삼아 그 구조적 특징과 작가 의식을 고찰해 보았다. 이 소설은 원래 전쟁발발 직후부터 휴전협정이 시일을 끌던 전란 중에 탈고,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31) 164쪽.

당대의 현실상황과 인식을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수많은 생명을 사라지게 하고 삶을 파탄과 고난으로 몰아넣은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인물들이 겪는 피난살이의 고난과 함께 애정 갈등이 전개되며 동시에 전쟁의 진행 상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소설에 반공적 시각과 애국심을 고양하는 선전성(宣傳性)이 드러나는 것은, 작자 자신이 육군중군작가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LST를 타고 인천 상륙 작전을 직접 체험하였다는 점에서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그러한 선전성은 때로 부자연스러운 인물의 행위로 드러나고, 대상이나 사실의 미화, 왜곡으로 나타나기도 함으로써 소설의 사실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소설은 6.25전쟁을 단순한 무력 대결이 아니라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과 체제의 대결이라는 시각을 견지한다. 작자는 이 전쟁이 사상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전쟁에 연관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전 민족이 힘을 모아서 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소설을 끌고 나간다.

그래서 인물도 반공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대립적인 구도로 설정하였다. 반공주의자 형철은 선인으로 그려지는 반면에 공산주의자 주몽일은 사상의 노예, 악인으로 그려진다. 이에 따라 국군 모병에 자발적으로 응하여 전선으로 나가 싸우는 열렬한 애국자를 창조하고, 석 달 동안 자행된 공산 정치의 폭압과 잔인성을 폭로한다. 지팡이를 짚는 형철이 잔적 소탕전에 참여하고, 미군 비행기가 눈이 달린 듯이 적을 골라서 소탕하며, 제이 국민병이 투철한 애국애족 의식을 가졌다는 식으로 묘사, 서술되기도 한다.

피난의 와중에서 형철-나미-정란의 애정 갈등은 마침내 형철과 나미가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것은 삶의 피폐와 절망을 이겨내는 인간 구원의 길로 들어선다는 보편적 휴머니즘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 마지막 장 제목 ‘폐허의 달’이 상징하듯이 진정한 현실 극복의 길이라기보다는 고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운명에 순응하면서 절망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의 표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 구하기 위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비참한 현실과 상처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주제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김송의 장편 「永遠히 사는 것」은, 전중소설로서 그 가치를 온당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송, 「영원히 사는 것」, 『한국문학전집 26』, 민중서관, 1959.
- 구상, 「종군작가단 2년」, 『전선문학』, 1953. 5.
- 김문수, 「한국전쟁기 소설에 나타난 피난민의 삶과 의식」, 『우리말글』 제44집, 우리말글학회, 1998, 295~330쪽.
- 김세중, 『한국과 6.25전쟁』, 연세대학교출판부, 2002.
- 김철범 편, 『한국 전쟁을 보는 시각』, 을유문화사, 1990.
- 남정옥, 『6.25전쟁시 예비전력과 국민방위군』, 한국학술정보, 2010.
- 박명립, 『한국 1950 :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 박신현, 「한국 전시소설의 현실의식 연구」, 『문학과 언어』 제13집, 문학과 언어연구회, 1992, 363~386쪽.
- 부산일보사 편, 『임시수도 천일』, 부산일보사, 1985.
- 서경석, 「전후문단의 재편과정과 그 의의」, 『한국전후문학의 형성과 전개』, 태학사, 1993.
-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휴머니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 신영덕, 『한국전쟁과 종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 이상원, 「제2국민병의 소설화 양상에 대한 일고찰」, 『한국문학논총』 제61집, 한국문학회, 2012, 209~236쪽.
- 이순욱, 「한국전쟁기 문단 재편과 피난문단」, 『동남어문논집』 제24집, 동남어문학회, 2007, 173~203쪽.
- 이은자, 「195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상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1994.
- 임무출, 「김송의 생애연구」, 『영남어문학』 제16집, 영남어문학회, 1989, 301~329쪽.
- 임무출, 「김송소설론」, 『영남어문학』 제20집, 영남어문학회, 1991, 211~

232쪽.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의 해부』, 문예출판사, 1993.

진덕규 외,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1990.

최상민, 「김송 희곡에 나타난 근대의식 고찰」, 『한민족어문학』 제44집,
한민족어문학회, 2004, 439~465쪽.

한국문인협회 편, 『해방문학 20년』, 정음사, 1971.



<Abstract>

Study on 「*Eternal Living*」 Written by Kim Song during Korean War

Lee, Sang-Won*

Eternal living, written by Kim Song in period of Korean War, reflects real-life situation of the time. It shows the anticommunism vision to win the war and propaganda that promotes patriotism. This novel expresses hardship of refugee life, conflict of affection, the progress of Korean war and characters who involved in war and suffer pain. Writer shows that the Korean War was not only military force competition but also competition of ideology and system between communism and liberal democracy.

Writer thinks because the war is ideological warfare, every man cannot be irrelevant with it. This novel, therefore, based on the thinks that people should cooperate and defeat enemy. Hyong-Chil, patriot, is portrayed good man but Ju Mong-il, communist, is described as bad man and slave of idea. The creation of character who exposures oppression and cruelty of communism politics in three month and volunteers for military service to fight at front is also in tune with the theme of this novel.

But propaganda in this novel sometimes presented as unnatural behavior or beautification and distortion. These things are the factors that reduce realism. Although Hyong-Chil, Na-Mi, Jung-Ran suffer

*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conflict of affection and difficulty, Hyong-Chil and Na-Mi recover the sincere love in the end. This ending that character finally take the road of rescue corresponds with universal humanism.

But it still has limitation that the road character chose is not the true road to overcome reality. As the title of last chapter 'Moon of Ruin' symbolizes, Hyong-Chil and Na-Mi accepted hardship of reality and conform to fate. So they could not go further than just expressing the will to escape from despair.

Eternal living is not just realizing vision of anticommunism. It should be given good value for reflecting the adversity of Korean War well and inspiring patriotism and also giving prominence to the theme that overcomes reality with love and belief.

Key Words : Kim Song, Period of Korean War, Novels during Korean War, propaganda, refugee life, patriotism.

■ 논문접수 : 2013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3년 7월 20일

■ 게재확정 : 2013년 8월 5일